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대구광역시 동구을	
후보자명	유승민	기호		소속정당명	새누리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유승민이 시작한 K2이전 유승민이 끝까지 해냅니다. K2 이전, 유승민은 불굴의 의지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.				

□ 2005~2007년 7년간의 노력과 변화

○ 2005년 : K2이전을 약속했습니다.

○ 2006년 : 국방부와 공군 설득을 시작했습니다.

○ 2007년 : K2이전,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 되었습니다.

○ 2008년 : 유승민, K2이전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.

○ 2009년 : K2이전의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국방부와 공군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북도 내 세 곳의 이전후보지를 찾아냈습니다.

○ 2010년 : 이명박 대통령이 기지이전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유승민과 국방부는 「K2 이전 특별법」을 만들었습니다.

○ 2011년 : 유승민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. 국방부, 기재부, 총리실, 청와대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모두 동의를 받아냈습니다.

○ 2012년 : 「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이 마침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

□ K2이전에 미친 유승민을 한 번 믿어보십시오.

○ 「K2 이전 특별법」(정식명칭 :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)은 18대 국회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고, 안되면 19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.

○ 「K2 이전 특별법」이 제정되고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K2 이전이 시작되는 그 날까지, 유승민은 국방위원회에 남아서 끝까지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.

○ 유승민은 국회 「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」의 대표로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합하여 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○ 「K2 이전 특별법」이 제정되면 유승민은 대구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이전 후적지 발전계획과 불로동, 도평동, 지저동, 동촌동, 방촌동, 해안동, 안심1동 안심2동, 안심3·4동 등 주변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.

○ 유승민은 K2가 이전하더라도 공군의 안정적 훈련여건을 보장하고 이전할 새로운 기지에 주택, 자녀보육, 어른신 복지, 군인가족의 문화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는

등 공군장병과 가족들의 명예와 복지, 생활권을 충분히 보호할 것입니다. ○ 또한, 대규모 부지확보를 통해 소음피해로 인한 민·군 갈등이 없어지고 주변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설치하여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.
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불평등한 소음피해 배상 판결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.

우리 동구 주민들께서는 수십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의 피해를 당해왔습니다.
그러나 2011년부터 대법원이 확정 선고한 소음피해 배상 판결은 너무나 불평등하여 주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.

□ 법원의 소음피해 배상 판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.
○ 첫째, 수인한도(사람이 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)를 법원이 85웨클로 정한 것은 전투기 소음피해의 현실을 너무나 몰라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.
○ 둘째, 배상의 기준이 되는 소음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.

□ 법원의 배상판결은 평등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. 유승민은 소음피해 배상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○ 대법원이 수인한도를 80웨클로 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도록 적극 설득하겠습니다. 법원판결에 채택될 소음측정도 국가예산으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게 하겠습니다.
○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대립으로 5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「군소음 특별법」을 『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으로 강화하여 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이 특별법은 ① 80웨클 이상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소송 없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, ②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은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(95웨클 이상 토지매입, 개인주택과 공동시설의 방음창·냉방시설 등 방음대책, TV수신료, 냉방전기요금, 주민복지지원사업 등).

공약번호: 3	공약 제목 : 유승민이 시작한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, 유승민이 완성합니다.

□ 유승민은 대구혁신도시를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연구소, 첨단의료복합단지, 주택, 복지, 교육, 문화, 교통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명품 혁신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.

○ 2005~2012년 7년간의 변화

- 2005년 : 유승민은 혁신도시의 동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.
- 2008~2010년 : 유승민은 「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」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백지화 시도를 온 몸으로 막아냈습니다.
- 2011~2012년 : 마침내 혁신도시는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.

□ '대구경북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'은 2012년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입니다.

※ 새누리당의 4.11 총선공약 중에서

-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'국가첨단의료허브' 구축
-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센터, 한국뇌질환센터 등 유치

○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경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천연물신약 사업(일명 동의보감 사업), 한국유전체연구원, 한국뇌연구원, 줄기세포재생의학 연수원 등을 유치하여 대구경북의 첨복을 국가의료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.

공약번호: 4	공약 제목 : 따뜻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.

□ 동구교육 확실히 살리겠습니다.

○ 혁신도시에 전국 최초의 중국어 특성화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.

○ 동구(을) 지역에 초·중·고 우수교원을 영입하여 질 높은 양성 교육을 실천하고, 지역 근무교사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특구지역 지정을 조기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.

○ 폭력과 왕따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 학교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동구청에 구축하여 24시간 우리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.

○ 입석초·중, 율하초, 동촌중 등에 다목적교실(강당 겸 체육관)을 짓고, 불로초, 해안초 등 지역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.

○ (구)해서초 부지에 특기교육지원센터(학생문화센터 분관)를 건립하고 테니스코트, 휘트니스센터, 작은 도서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돕겠습니다.

□ 여성의 복지,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○ 국공립 보육시설을 계속 확대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.

○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예산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.

○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도 공평한 양육비 지원과 여성주부를 위한 맞춤형 주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.

□ 장애인복지관과 재활센터의 예산확보 등 동구 장애인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□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보훈에 앞장서겠습니다.

○ 6.25 참전유공자, 베트남 참전유공자, 고엽제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과 예산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.

○ 6.25참전 소년소녀지원병과 전몰군경유가족의 명예와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과 예산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.

○ 연평도, 천안함 사태 등 북한의 도발로 희생당한 장병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.
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지역현안사업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안심연료단지 이전, 유승민이 대구시와 함께 해냅니다.

○ 안심연료단지 이전후, 시멘트 레미콘공장 이전을 착수하겠습니다.

○ 안심연료단지 후적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지역민을 위한 상업문화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.

○ 국토해양부, 대구시와 협의하여 안심공업지역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.

□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.

○ 2008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 대폭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.

○ 환경부와 협의해 해제를 위한 기반공사를 조속히 실시해 최종해제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.

□ 이시아폴리스를 첨단패션과 명품주거,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

○ 공연문화 R&D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불로소방파출소를 이전 건립하고, DTC(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)를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영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습니다.

○ 앞으로 대구가 계속 밀양만을 고집하고 부산이 가덕도만을 고집한다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어렵습니다.

○ 유승민은 부산의 정치권과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영남권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.